

투데이 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깊은 침체에 몰아넣었다. 여기에 지난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경제정책까지 더해져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양극화와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술과 공정, 포용과 지속 가능성을 아우른 종합적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절망을 희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기술이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AI 발전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때 우리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선포하며 첨단 GPU 5만 장을 조기 확보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가 철강과 조성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AI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당찬 선언을 한 것이다.

AI와 함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축은 'ABCDE 산업'이다.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 먹거리를 전략적으로 키워 세계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연 4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한국 기술력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를 연 4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글로벌 유니콘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창년과 스타트업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다. 이는 '도전하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위기는 수도권 집중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지방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5대 3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배치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방 정부에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여 진정한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 주도의 성장,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경제 성장은 공정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합'을 만든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당'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이다.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고, 국민 성장 편드를 통해 미래 산업을 키워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는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장기 전략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이다. 서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태양광,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햇빛과 바람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획은 탄소중립 시대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이다. 환경과 성

장이 조화를 이루는 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다.

정부는 5년간 210조 원을 투입하되, 감세 정상화와 조세개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94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로 116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무작정 빚에 의존하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 전략은 경제 지표의 상승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국민이 모두 혜택을 누리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며,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나라를 물려받도록 하는 희망을 품고 출발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기술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길은 그 담대한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과 동참이다. 우리 모두가 한걸음 마음을 모아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을 넘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는 늘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며 온 국민이 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다.

사설

북한판 '안리경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집결했다. 이들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66년 만이다. 냉전시절 공산권 진영 주축이던 이들은 함께 모여 세를 과시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 국가들에 함께 대항하겠다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앞두고 두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방에 밀착하지 않는 북한판 '안리경중' (안보는 러시아와, 경제는 중국과 밀착한다는 의미) 등거리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베이징 헝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선 북·중·러 정상을 비롯해 이란 쿠바 파키

스탄 벨라루스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은은 열병식 망루 중앙 시 주석 왼쪽에, 푸틴 대통령은 오른쪽에 자리해 '신(新)냉전 구도'가 부각됐다. 헝안먼 광장에는 미국령 괌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RBM) 등 평-26(DF-21), 미 7함대를 노리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동평(DF)-100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가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상대로 강한 압력을 행사하자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차원도 있다. 김정은은 2018년·2019년에도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한 후 미·북 정상회담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 논란

주식회사는 자본 충실의 원칙상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거 상법 및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자기주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자사주 활용 관련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이 규정들은 삭제되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여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는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효과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행한 이른바 '자사주 마법'도 자사주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자사주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 도구인 동시에, 언제든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었다.

개정 상법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시 의견권 제한 등을 통해 소액주주 측의 이사회 진입 내지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제계에서는 의무소각 제도가 가지를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선, 지난 15년간 법 제도를 신뢰하고 수립해 온 장기 전략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규제 강화라는 불가피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기고문

10월 추석이 다가오며 추석 성묘를 위한 벌초작업이 다가옴에 따라 벌쏘임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10월중 벌 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평균 4명이었으며, 벌초 중 발생한 벌쏘임 심정지 환자는 평균 3명이었다. 또한, 요일별로 보면 주말 이틀간 벌 쏘임 이송환자가 주중 5일보다 더 많았다. 벌에 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개안에 따라 편차가 크다. 국소적인 통증만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어떤이는 전신에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인후두가 부어 호흡곤란이 생기기도 한다. 신체의 면역 체계와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사람마다 증상이 달라. 이번 추석 벌초 중 나와 내 가족이 벌에 쏘여 위

추석맞이 벌초, 벌 쏘임 주의하세요

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벌 쏘임에 대한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먼저, 내가 입은 복장에 따라 벌들의 공격성향 실현 결과 검은색/갈색/빨간색/초록색)노란색 순서로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벌초 시에는 가급적 검은색, 갈색과 같은 어두운 색 옷은 피하도록 하자.

이로 인해 우리 신체에서 검은색이 밀집해 있는 머리 부위를 집중 공격하기도 한다. 벌에게 공격을 받을 때 자세를 낮추고 웅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머리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니 위험하다. 벌들이 공격성향



임 준 석

전주덕진소방서
팔복119안전센터
소방장

을 보이면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거리를 이탈하자.

벌은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 등에 후각이 자극되므로 벌초전에는 삼가야 하며, 당분이 포함된 음료 등에 자극받아 접근할 수 있으니 벌이 있을곳으로 예

상되는 곳에서는 달콤한 음료 섭취를 자제하자.

벌 쏘임 시 손으로 벌침을 제거하기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살을 밀어내듯이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의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해 준다.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로 신고 후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자.

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벌독에 의한 사망자 중 79%가 1시간 이내 사망했다. 즐거운 한가위 추석을 대비한 벌초, 벌쏘임에 주의하고 벌 쏘임 시 즉시 119에 신고해 안전한 연휴를 보내자.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